

휘발유값, 28주 연속 상승

전주비 4.2원 ↑ 리터당 1563.9원...사상 최장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판매 가격이 2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2원 상승한 리터(1) 당 1563.8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리터당 1437.75원을 기록한 지난해 7월 넷

째주 이후 28주 연속 상승했다. 이전까지 가장 상승기록은 2010년 10월 첫째 주부터 2011년 4월 첫째 주까지 26주 연속 상승이었다.

경유도 5.0원 오른 1359.5원을 기록하며 전주에 세운 역대 최장 기록을 29주로 늘렸다.

상표별 판매가격을 보면 최저가는 알뜰주유소로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주 대비 4.8원 상승한 1533.2

원, 경유는 5.5원 오른 1329.9원이었다.

최고가는 SK에너지로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3.8원 오른 1,583.8원, 경유는 4.6원 상승한 1,38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 휘발유 가격이 타 지역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주 대비 12.6원 오른 1637.2원을 기록했다.

최고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상승한 1654.4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90.6%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경남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3.8원 오른 1542.2원으로 최고가 지역 판매가격 대비 112.2원 낮은 수준이었다.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이어온 유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강세와 미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 2018년 미국 원유 생산 전망치 상향 조정, 미 원유 재고 증가 등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국내유가 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뉴스스

6주간 '숨은보험금' 8310억원 찾아갔다

"모든 보험회사, 중도보험금 발생시 소비자 안내해야"

금융당국이 '숨은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6주간 소비자들이 찾은 숨은보험금 규모는 약 8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서비스 개시 및 캠페인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월말까지 약 214만명의 소비자가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숨은보험금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숨은보험금 7조 4000억원 중 약 8310억원, 59만건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도래 전인 '중도보험금'은 4509억원·40만건,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인 '만기보험금'은 2507억원·6만건,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839억원·13만건, 사망보험금은 461억원·4000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시설에 맡겼다가 거액의 숨은보험금을 찾으면서 아이를 데려오는 등 '흔흔한' 사연들도 일부 소개했다.

A씨는 1998년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가 2000년 7월 1

급 장애진단을 받아 20년간 매년 1000만원씩 분할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1회 보험금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뒤 주소를 연락처가 모두 바뀌게 되면서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

A씨 가족은 첫 아이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 3명의 아이들과 어렵게 지내다가 첫 아이를 시설에 맡겼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금 2억원을 찾으면서 증증 장애인 시설에 맡겼던 딸을 데려올 수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B씨 역시 보험을 통해 매년 10년간 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처음 한 번만 보험금을 수령한 뒤 주소가 바뀌어 추가적인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캠페인으로 모르고 있던 보험금 970만원을 받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결했다는 사연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 계약자 주소가 바뀌더라도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

중도보험금 발생 시마다 보험회사가 우편발송과 함께 휴대폰 문자,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스

대중교통 평일 1151만명 이용...1인 평균 2469원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발표



대중교통 평일 이용자 수는 평균 115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2469원의 요금을 지불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조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시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162개 시·군 1만1020개 노선, 8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교통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시내버스와 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이용 실태를 보면, 하루 평균 평균 1151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이 중 71.8%인 825만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7~9시, 오후 6~8시, 출·퇴근시간 통행이 16.8%로 가장 많았다. 통행시간은 63.8분 정도 소요됐으며, 4명 중 1명은 버스·버스 또는 버스-지하철로 환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내버스 노선 중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버스 노선은 서울특별시 정릉에서 개포동까지 운행하는 143번 버스로서 하루 평균 4만5200명이 이용했다.

경기도 최다 이용 노선은 부천시 대장동 종점과 여의도 환승센터를 잇는 88번 버스로서 하루 평균 4만1862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차간격이 짧고 중심상업지구(CBD)나 전철을 따라 이동해 승객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해운대와 사상(모라주공)을 연결하는 31번 버스가 하루 평균 이용인원 3만 4104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구광역시는 북구 칠곡지구와 대곡 주공단지를 연결하는 726번 버스가 1만9661명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광역시는 진월07번(송암공단~삼례시외고) 버스가 2만1007명, 대전광역시는 102번(수봉골~대전역동광장) 버스가 2만940명, 울산광역시는 401번(울리차고지~꽃바위차고지) 버스가 1만5858명, 세종시는 990번(BRT11) 버스가 5627명으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집계됐다.

전국 버스 정류장 중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정류장은 서울시 '사당역정류장'이 3만6385명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수원역·노보텔수원정류장'이 3만2164명, 인천광역시 '주안역환승정류장'은 2만 4632명이 이용해 최다 이용 버스 정류장으로 나타났다.

이 정류장들은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와 버스 간 환승뿐 만 아니라 광역환승센터와 같은 버스 간의 환승여건 또한 양호한 곳이다.

매포 데이터를 이용한 고속·시외버스와 철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속버스 평일과 주말 이용인원은 각각 일일 약 8만6000명과 16만1000명, 시외버스는 일일 약 41만2000명과 59만5000명으로 조사돼 주말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스

오늘 Lotto 제 793회차 당첨결과 (2018년 2월 10일 추첨)

10 15 21 35 38 43 + 31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5	3,750,146,77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1	51,231,514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043	1,529,674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98,21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635,392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 지급계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일(일일)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